

# 이제 다시 타는 목마름으로

글 · 어수갑 eohsg@kdemo.or.kr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발행 언론노보 호외-KBS 관선사장 거부투쟁 속보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성명 '당국의 KBS 경찰 투입 및 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땀 흘리며 산을 오르는 것은 산 아래 내가 사는 땅  
 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이다. 산악인 엄홍길도  
 비슷한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원  
 점으로 돌아가는 시작”이라고. 마찬가지로 정론직필의  
 펜대를 곧추 세우는 일은 권력과 자본 앞에 퇴영의 유  
 혹에 빠지기 쉬운 민주주의를 제 자리로 복귀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근래 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  
 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인 언론·출  
 판·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데  
 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에서 특별보고관이  
 내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운 일이다. 프  
 랑크 라 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08

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  
 유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여 우려된  
 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격’ 떨어  
 지는 소리가 들린다.

언론이 자신의 고유역할인 권력과 정  
 권에 대한 비판기능은 내팽개친 채 진실  
 을 왜곡하고 황색 ‘짜라시’나 팔아 장사  
 할 생각이나 한다면 신문은 휴지조각이  
 고 방송은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권도 언론을 ‘제  
 4의 권부(權府)’로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터이다.

KBS가 ‘특정정파의 선거운동본부로 전락했다’는 말  
 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지금, KBS나 MBC에서 보여지  
 는 일련의 사람과 프로그램 숨아내기 행태는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핵심적 갈등구조를 김정훈 성공회대학  
 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기존 관점과는 달리 ‘합  
 리와 비합리’라고 풀이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 보수, 민  
 주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이념이 표현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존재하며, 그것은 ‘비합리성’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나 양극화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이지만, 미국  
 쇠고기 수입, 4대강 살리기, 제2롯데월드, 용산참사 등  
 의 문제는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진보니  
 보수니 이전에 합리와 비합리, 또는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인 것들이 많다.

최근 들어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 지나치다 못해



KBS 자주수호사원 비상총회 모습



1990년 3월 이사장실 폐쇄를 요구하며 농성하는 KBS 노조원들

용렬하기까지 한데, 어떤 국회의원은 젊은이들이 즐겨  
 보는 ‘개그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의 한 쪽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일등만 기억하  
 는 더러운 세상’에서 낙오된 대다수 시민들을 대신해  
 횡설수설하는 것조차 위험하고 혁명적인 것으로 보이  
 는 모양이다. 가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  
 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끝없이 불거져 나오는 마초적  
 이고, 퇴행적이고, 군사문화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여러  
 행태의 퍼레이드를 보고 있노라니 과연 지금이 2010년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주의 이전에 상식도 통  
 용되기 어려운 행태들에 대해 어떤 문인이 참다못해  
 ‘문학적으로’ 독설을 퍼부었는데, 그는 “언론의 맞춤법  
 은 작위적이고, 미친개들은 국민에게 오타를 남발한다.  
 당신들의 언어는 번역이 안 된다”(박상, 2009, <6.9작  
 가선언>에서)고 일갈했다.

말할 것도 없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비밀비재했다. 언론학자 강준만은 그의 책 『한국현대사산책』에서 “1980년대 말부터 방송계엔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과거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던 방송사를 거느려본 기억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엔 방송인들의 방송민주화운동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불편한 심기는 1989년 3월 KBS가 <광주는 말한다>를 방영했을 때 민정당 대변인 박희태의 성명을 통해 잘 드러났다. 그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던 KBS’가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지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노태우 정권은 개탄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방송통제에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 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1990년의) ‘KBS 사태’ 혹은 ‘KBS 4월투쟁’이었다”고 기술했다.

‘KBS 4월투쟁’ 혹은 ‘KBS 노조 방송민주화투쟁’은 무엇인가. 1988년 5월 20일 노동조합을 결성한 KBS 노동자들에 의한 방송민주화운동이 구체화되면서 노태우 정권은 불편함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권 측은 확고한 언론장악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지방자치제 선거와 1992년 대통령선거 등에서 권력재창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써 언론을 도구화해 가고 있었다. 이에 맞서 전국민의 민주언론수호투쟁의 의미를 지닌 KBS 노조의 방송민주화 투쟁은 그 일환으로 1989년 3월에는 <광주는 말한다>를 제작해 방영했고, 조선대생 이철규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회조사단의 관계자 심문 내용에 대한 생방송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1990년 1월 뇌물수수 혐의로 연예 PD 6명을 구속하고, 1990년 2월 법정수당 지급을 ‘예산 변칙 지출’로 몰아 KBS 전 직

원이 불법으로 공금을 착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움직이는 한편, 노조에 협조적이었던 첫 민선 사장인 서영훈을 퇴진시키고 서울신문 사장 서기원을 임명했다.

이에 3월 6일 낮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 앞에서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과 KBS 노조 공동주관으로 ‘방송자주권 쟁취결의대회’가 언노련 집행부, 각 언론사 노조위원장단, KBS 사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KBS노조원들은 서기원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이에 경찰 병력 900여 명이 4월 12일 오전에 한국방송공사에 들어가 신임 서기원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던 사원 117명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KBS 사원들이 항의하며 제작 거부를 결의해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방송 중인 스튜디오 안에 노조원들이 들어가 침묵시위를 벌여서 12일 밤 9시 뉴스가 중단되었다. 4월 13일 ‘KBS 비상대책위원회’는 서기원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제작거부 투쟁에 돌입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남산에서 여의도까지 ‘언론민주화쟁취요구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30일 오후 사원총회의 분위기가 정상화 방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자, 여의도 KBS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사원들의 투표 결과가 예상대로 부결쪽으로 나타나자 개표 종료 2시 30분 만에 3,000여 명의 경찰이 KBS에 들어갔다. 경찰은 30일 밤 11시 15분 ‘여의도 진압작전’으로 명명된 KBS 내 농성사원 강제해산 작전에 들어가 50여 분 만에 본관 2층 로비에서 농성 중인 사원 333명을 전원 연행했다.

2차 경찰 투입 직후 MBC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KBS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 사원 비상총회 모습

열었고, 그 결의에 따라 5월 1일 10시에 비상총회를 열어 전면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19개 지방 MBC도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연대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4월 23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여왔던 CBS 노조도 같은 날 MBC와 동시에 제작 거부에 돌입하여,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음악만 내보냈다.

5월 14일 ‘KBS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송 정상화와 서기원 퇴진을 요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KBS노조의 1990년 4월 투쟁은 노조원 20여 명이 구속된 채 서기원 사장의 취임 저지는 실패로 끝났다.

KBS 투쟁의 성과는 첫째, 노태우 정권이 조성한 공안정국 속에서 민족민주운동 진영과 노동운동 진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둘째, 국민들에게 노태우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국민적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셋째, KBS 투쟁을 계기로 각 부문의 운동단체가 새롭게 연대와 전진을 강화했다는 점 및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의 결집체인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가 결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 등이다.



KBS, MBC 노조원들의 방송 민주화를 위한 총회 모습(1990년 5월 1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사원들은 신문들의 편파적인 보도 등으로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내부 분열까지 겹쳐 제작거부 38일 만인 5월 18일 백기를 들고 방송정상화에 들어갔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우연인지는 몰라도 MBC노조가 파업을 접고 ‘방송정상화’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상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방송만 내보낸다고 그게 정상화는 아닐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권리가 고루 충족된 내용의 정상화이어야 하지 않을까. 앞서 언급한 라 튀 보고관은 MBC 파업에 대해 “관심 사안은 공영방송 사장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뀐다는 점”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관련법이 고쳐져야 하고 대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은 다원성과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며 근원적인 처방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푸르른 향쟁의 계절, 신록의 6월 신새벽에 타는 목마름으로 다시, 남몰래 써본다.

“민.주.주.의.여.만.세.”

글 · 사료 어수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